

국산약재 전반적 물량부족 현상 불구하고 약보합세 출하시작된 맥문동 지실 약재는 이례적 오름세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한약시장의 경기는 숨결 틈도 없을 만큼 더욱 죄어들고 있다. 국산 약재의 경우 전반적인 물량 부족 현상을 띄고 있음에도 경기불황에 한약시장의 비수기까지 겹친 요즘 국산한약재 시세는 전반적인 내림세 경향을 띄고 있는 가운데 매기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국산약재 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00물산"이나 "00상회"들과 경우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는 문을 닫고 한의원이나 약업사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다. 갈수록 한약시장에서 국산 한약재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현실의 반영인 셈이다.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햇것 출하에도 불구하고 맥문동, 지실 약재는 이례적인 오름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 품목. 어성초나 익모초, 인진, 구절초, 현지초 등 풀잎 약재가 이달부터 본격 출하돼 나올 예정이며 시세도 다소 내림세 보일 전망이나 풀잎약재 채취량이 갈수록 감소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띈 만큼의 하락세는 없을 듯.

강활 지난 3월말 근당(6백g기준) 1만1천~1만1천5백원 선이던 강활 값이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5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강활 도매시세는 1만2천~1만2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수입산도 있지만 국산과 종이 달라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별되는 데다 지난해 국내

강활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틈을 타 사재기에 들어간 장사꾼들에 의해 국산 강활 물동량이 묶여 있는 것이 최근 강활 값의 지속적인 상승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귀 5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토당귀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3천3백원(통), 4천3백원(절) 선으로 지난 3월보다 다소 내림세. 지방에서는 토당귀 절품 시세가 근당 4천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 일당귀도 근당 3천1백원 선으로 2,3백원 폭 하락했다. 수입당귀는 근당 1천5백~1천8백원 선. 최근 들어서는 국산 토당귀 종자를 들여다 재배, 국산과 거의 흡사하게 가공한 중국산 당귀가 국내 반입됐다는 입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약보합세 경향을 띄고 있는 국산 당귀 시세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맥문동 햇것 출하가 거의 마무리된 밀양산 맥문동 시세가 근당(6백g기준) 8천5백원(거심), 맥맥은 5천3백원 선. 햇것 출하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초 시세인 근당 8천원(거심) 선보다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이례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 수확량은 예년 평년작 수준이나 출하 초기 산지에서 근당 4천2백원 선에 농가수매 되던 것을 청양 상인들이 근당 4천5백원에 약 1만근 가량을 수매해 가져 밀양상인들이 다시 5천~5천2백원

선까지 시세를 올려 물량을 수매함으로써 산지 시세가 출하기임에도 예년과 달리 오름세 보이고 있는 것. 청양산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햇것 출하가 이어질 전망이다. 청양산 햇것 출하와 함께 맥문동 시세 거품도 다소 빠질것이란 분석이다.

산수유 경기부진으로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산 산수유 시세도 약보합세. 지난 4월 초 9천~1만원 선까지 거래되던 산수유 값이 5월말 현재 근당(6백g기준) 8천5백~9천5백원 선으로 하락했다. 국산과 거의 흡사한 수입 산수유는 근당 5천5백원 선. 수입산과의 시세차도 있고 더구나 한약시장 경기침체로 국산 산수유 매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한여름 불경기가 풀러갈 때까지 시세는 당분간 약보합세 전망.

지황 거래부진 속 약보합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5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건지황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5천5백원(대), 4천5백원(중), 4천원(소) 선이다. 국산 건지황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생산 가공된 수입 건지황은 시중에서 근당 1천2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지난 2000년에는 생지황 가격이 근당 2천5백~3천원 선으로 높은 시세에 거래됨으로서 건지황 출하량이 급감, 시세도 비교적 높은 근당 9천~1만원 선을 형성했으나 지난해는 지황 생산량이 급증, 생지황 시세

가 근당 7백~1천원, 적게는 5백원 선까지 폭락함으로써 건지황 시세도 약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 십년간 한약업에 종사해 온 상인들에 의하면 내년 지황 시세는 그래서 올보다는 다소 오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약 물량 귀해 오름세. 불경기 속 드물게 꾸준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 품목 중 하나. 5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산약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1만2천5백원 선으로 근당 9천원 선이던 지난 4월초 보다 3천5백원 폭으로 경총 뛰었다. 자연산인 생산 약은 근당 2만5천원 선이다. 5월말 현재 국산과 유사한 수입 재배 산약은 근당 4천5백원 선으로 근당 3천2백원 선인 수입 생산약 보다 다소 높은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지실 본격적인 햇것 출하하기 임에도 수확량이 예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산지인의 전언. 따라서 시세도 근당(6백g기준) 1만1천원(애지실), 1만원(소지실), 6천원(중지실) 선으로 지난4월 초 시세와 큰 차가 없다. 지실은 애지실, 소지실, 중지실 순으로 출하되는데 현재는 애지실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지실은 소량, 중지실은 아직 볼 수 없다. 한 시장 상인은 "햇것 출하 물량이 적어 산지에서도 근당 9천원에는 애지실 물건이 없어 두 짝 간신히 1만원 주고 사왔다"고 말했다.

두충 다소 오름세를 보이는 듯 싶던 두충 시세가 햇것 작업기에 들면서 다시 하락세 보이고 있다. 5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두충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지난 4월 초 3천5백~4천원 시세보다 5백원 폭으로 떨어진 3천5백원(상품), 3천원(중품) 선이다. 거래부진으로 시세 당분간 약보합세 이어질 전망이다.

오가피 때아닌 오가피 진위 논쟁으로 최근 신문 광고지면이 뜨겁

중국 보저우시 서기일행 영주 방문

중국 최대 한약재 집산지인 안후이(安徽)성 보저우(溇州)시의 진지바오(金巨保)서기 일행이 3일간의 일정으로 경북 영주시를 방문했다.

지난달 9일 영주시에 따르면 자매결연 추진과 산업시설, 문화유적 견학을 위해 8일 영주시를 찾은 진 서기 일행 8명은 이날 오전 영주시청에서 시 관계자들과 자매결연추진을 협의하고 동양대학교, 풍기인삼시장, 농업기술센터, 신연초제조창 등 산업시설과 소수서원 등 문화유적을 둘러봤다.

보저우시는 면적 8천394㎡, 인구 525만명의 내륙도시로 중국 최대의 한약집산지이며 노자, 장자를 비롯, 삼국지 등장인물인 조조와 명의 화타가 출생한 유서 깊은 문화도시다.

영주시는 지난 2월 서기일행이 보저우시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풍기인삼, 마, 하수오 등 지역특산물의 중국 수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그 영향 때문인지 요즘 같은 불경기 속에서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품목이 바로 오가피. 5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원오가피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1만5천원 선, 막오가피는 근당 3천5백원 선이다. 수입산은 1천4백원(막오가피), 2천2백원(원오가피), 3천2백원(가시오가피) 선 등 물건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천궁 물량이 그리 많은 상황이 아닌데도 경기불황으로 매기가 없어 시세는 약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초 1만6천원(일천궁 절), 4천원(일천궁, 절)선에 거래되던 천궁값이 5월말 현재는 그보다 다소 빠진 근당 1만5천원(토천궁), 3천7,8백원(일천궁)선을 형성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부진한 상황. 수입 천궁은 근당 9백~1천1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문정희)

전반적 약보합세

○...비수기로 인해 한약시장 경기가 전반적인 약보합세 경향을 띄고 있는 가운데 제철을 맞아 소비량이 많은 황기도 전반적인 약보합세 행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산동산 황기가 1.2\$에서 1.1\$로 내리고, 안국산 황기도 1.1\$에서 1.0\$로 하락했다. 2.70\$ 하던 연교는 2.0\$ 선으로 값이 내리고 당삼도 가격이 1.3\$에

중국약재 시장동향

금 올라 5월말 현재 18\$ 선에 거래되고 있다.

패모 왕편 상보합세

○... 중국 약재 시장 경기도 비수기는 마찬가지. 약재시세도 전반적인 약보합세 경향이 강하다. 다만 중국 산지에서 생산량이 한정돼 있어 물량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사재기를 하는 패모는 현재 12\$에서 15\$ 대로 오름세. 가격이 다소 내려 17\$ 하던 황련은 최근 들어 다시 조

금 올라 5월말 현재 18\$ 선에 거래되고 있다.

오미자 현호색 다소 내리

○...오미자 역시 물량부족을 점친 발빠른 한국상인들에 의해 사재기된 품목. 물동량이 귀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5\$선까지 거래되던 오미자 시세가 최근 다소 내려 5월말 현재 안국 약재시장에서 4\$ 선대에 거래되고 있다. 현호색도 1.40\$에서 1.20\$로 내림세.